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한단 파견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교육관계자를 파견하여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종 시찰, 관련강의 청강, 관계자와의 간담 등을 통해 앞으로 한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온라인) 일본의 교육 관계자 31 명
 파견 (오프라인) 일본의 교육 관계자 31 명

【방문지】 파견 (오프라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김포시, 파주시 31 명

【일정】

■ 사전학습 (온라인) :

8 월 5 일 (토) 방한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 파견 (오프라인) :

8 월 20 일 (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8 월 21 일 (월) 환영식

 【강의】 'SURVIVAL KOREAN, 생활한국어'

 【시찰】 서울대규장각,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8 월 22 일 (화) 【학교방문·교류】 서울공업고등학교 (급식 체험 포함)

 【시찰】 창덕궁, 실감 체험형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8 월 23 일 (수) 【학교방문·교류】 서울대림초등학교 (급식 체험 포함)

 【시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8 월 24 일 (목) 【시찰】 비무장지대(DMZ), 자운서원

8 월 25 일 (금) 【시찰】 국회의사당, 여의도한강공원, 덕성여자대학교, 성과보고회

8 월 26 일 (토) 인천국제공항 출국

2. 프로그램 기록사진



2023 년 8 월 21 일 【강의】
'SURVIVAL KOREAN, 생활한국어'



2023 년 8 월 21 일 【시찰】 서울대규장각

	
<p>2023년 8월 22일 【학교방문·교류】 서울공업고등학교</p>	<p>2023년 8월 23일 【학교방문·교류】 서울대림초등학교</p>
	
<p>2023년 8월 23일 【시찰】 국립중앙박물관</p>	<p>2023년 8월 24일 【시찰】 비무장지대(DMZ)</p>
	
<p>2023년 8월 24일 【시찰】 자운서원</p>	<p>2023년 8월 25일 【시찰】 국회의사당</p>

3. 참가자 소감 (발췌)

◆ 일본 교원

한국의 학교를 시찰하여 실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수업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 흥미로워하는 것을 실감하며 기뻐합니다.

◆ 일본 교원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교류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저 또한 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직업에 관해서는 물론 어학에 대한 공부도 지속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습니다. 일본 아이들도 이처럼 친밀한 관심을 갖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사하고 싶습니다.

◆ **일본 교원**

서울 대림초등학교에서의 모의수업 체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업자는 아니었지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과 학교에서의 생활 모습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모의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교과를 살려 일본 문화를 알린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한국 측 소감 (발체)

◆ **덕성여자대학교 (한국 측 실시 협력 기관)**

코로나 19 이후 재개되는 방한교원단 교류 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여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방한교원단분들이 한국의 문화, 언어, 산업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통하여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학교 방문, 교류를 통해 한국 교육현장의 이해 및 양국의 교원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교원단,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본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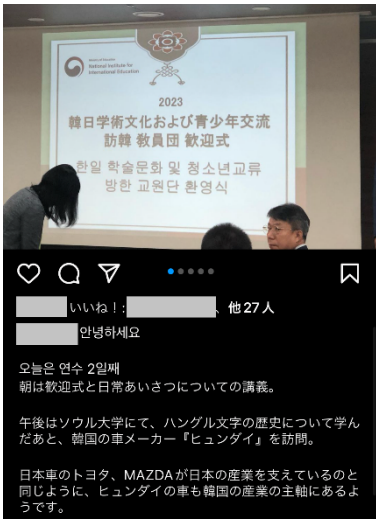
◆ **서울공업고등학교**

일본 선생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일본의 교육이 어떤지 어렵פות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화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한 일본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일본을 여행지로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사람과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를 기쁘게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대림초등학교**

교류수업은 본교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 했습니다. 수업하시고, 참관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좋은 경험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방일단과 방한단 선생님이 함께 한 본교 주변 마을탐방은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 일본 선생님의 긴장했던 표정이 가실 때는 즐겁고 아쉬운 표정으로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등을 통한 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2023년 8월 21일 (Instagram)
 (전략) 서울대에서 한글의 역사에 대해 배운 후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나 '마쓰다'가 일본 산업을 지탱하는 것처럼 '현대'의 자동차도 한국 산업의 주축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訪韓4日目
 ソウル大林初等学校訪問。
 模擬授業を行い、日本の文化について授業をした。
 韓国と日本の学校での違いを知った。
 学校施設参観と給食体験。韓国の教師との交流。
 日本の学校との差を感じた。
 午後は国立中央博物館とハンブル博物館見学。
 韓国の歴史やハンブルの歴史を学んだ。
 カリグラフィー体験。韓国語を書く楽しさを学んだ。



2023년 8월 23일 (Instagram)
 서울 대림초등학교 방문. 모의수업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중략) 학교시설 참관이나 급식체험, 한국 교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학교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김포시, 파주시)



【방한중의 배움】

- 한국의 교육 예산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이 충실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초등학교를 방문 했을 때, 아이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된다거나 외국인인 우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의 높은 의식을 느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한중 발표】

- 일본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통해 보는 한국'이외의 모습도 수업중에 이야기 나누며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 오늘 날의 아이들 간의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어 평화로운 세계가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액션플랜】

- 본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종합적인 학습(탐구)의 시간’에서 인권 교육과 국제 이해 등과 연계하여 소속 학교 내에서 연수를 실시해 교원 간에 공유하겠습니다.
- 한국 전통문화, 휴전 중인 상황에 대한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마주하여 지속적인 배움의 소중함에 대해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한국 교원들과의 인연을 학생들 간의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며 유지하고, 장래에는 학교 간의 자매 체결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내년도 이후 한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방일단이 실시되었을 때 시찰단이 수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